東亞日報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發行兼編輯人 印刷人

佛敎維新會의 寺刹令廢止運動

朝鮮佛敎維新會에서 寺刹令廢止에 關하야 그 會長 劉頑規氏外 二千二百八十四名의 連署로 長文의 建白書를 朝鮮總督에게 提出하얏다함은 本紙에 이미 報道한바어니와 吾人은 玆에 對하야 그 理由의 正當함을 認定하며 또한 그 惡法이 一日이라도 廢止되기를 要望하노라

…… 그 大源은 良心에서 發하고 그 信仰이 道理에 符合된 以上에는 그 發展을 阻止할것이 아니며 그 自由를 束縛할것이 아니니 이것이 信敎自由의 原則이라 過去 寺內時代에 發布된 寺刹令의 內容을 一覽하면 寺刹의 倂合、移轉、廢止、名稱變更에 一々히 朝鮮總督의 許可를 受하라하얏스며 寺刹의 本末關係 僧規 法式其他의 必要한 寺院도 一々히 朝鮮總督의 認可를 受하라하얏스며 寺刹의 住持就職도 朝鮮總督의 認可를 受하라하얏스며 寺刹에 關한 不動産의 處分도 朝鮮總督의 許可를 受하라하얏도다 일로 말하면 朝鮮總督은 佛敎에 羈馬放下이라 佛敎界에는 何等의 自由가 無하며 그 干涉이 苛酷한것도 事實이니 이러한 宗敎에 關한 法令은 世界에 罕有할것이라 勿論 在來의 佛敎信徒의 自覺程度가 低劣한것도 그 原因이 될것이나 現今에 至하야는 斯界의 有識의 靑年이 …… 야 그 不便을 呼하며 …… 展을 切願하는 以上에 …… 의 官僚的 寺刹令을 廢止 …… 要求에 應하는것이 善良한 …… 안인가 佛敎나 基督敎나 …… 世界的 宗敎라 그러면 그 …… 과 取締法令을 同一하 …… 지 正當하도다 基督 …… 吾人의 關係된바라하야 …… 利益을 取하고 佛敎는 …… 이라하야 그 自由를 束 …… 것은 도로혀 爲政當局 …… 음이며 信敎自由의 妨害 …… 如한 點에서 吾人은 佛敎의 權利와 自由를 爲하야 …… 하는것을 正當하다하고 發 …… 關係者의 一考를 促하노라

經濟發達의 要件(一)

一記者

自然과 國民經濟

…… 의 始點、終點又는 交叉點에 當한 土地는 忽然 交通의 中心이 되야 繁榮하게 되는도다 特히 古代의 交通은 與皆 川、海等 水路를 選取하얏나니 大川의 上流와 그 下流의 接海地는 船舶의 通行과 碇泊이 安全함으로 매양 交通의 中心이 되얏도다 羅馬 품오렌스 巴里 倫敦의 大都等이 모다 大河의 上流에서 發展함은 此의 理에 依함이로다

(四) 地勢如何는 文明流入의 遲速을 決定한것이니 地勢如何가 交通의 範圍를 制限하며 交通의 難易를 決定하는 以上에는 此 交通에 伴하야 流入하는 文明도 亦 地勢如何에 依하야 그 遲速을 生할것은 自明한 理로다 亞弗利加 文明의 曙光이 先히 海岸에서 發現되고 그 內地는 尙히 暗黑世界에 在한것과 我半島의 南 ……

…… 興替를 支配함이 多하도다 中古 伊太利의 諸都市와 獨逸의 라인河 도나우 沿岸의 諸都市는 當時 東西兩洋의 通路에 當한 所以로 크게 繁昌하얏스며 其後 喜望峯을 迂回하야 東洋에 直通하는 航路를 發見함으로써 天下의 繁榮은 葡萄牙의 리스본과 西班牙의 매드릿드에 移하얏스며 其後 更히 亞米利加 新大陸의 發見과 蘇士運河의 開通에 依하야 世界의 中心은 英國 倫敦에 移하얏스며 中國에 在하야는 上海는 四百餘州의 動脈이라고 稱하는 揚子江의 河口에 位함으로써 中國의 經濟的 中心이 되얏스며 臺灣의 領有와 日鮮貿易의 發達은 大阪으로 하야금 日本의 經濟的 中心을 成케하얏도다

(三) 地勢如何는 交通의 線路及 中心을 決定한것이니 古來로 天下의 通路는 皆 川脊을 避하며 谷을 通하고 川을 따라 平原에 出하야 更히 海濱에 沿走하얏도다 이와갓치 交通의 線路는 恒常 山、川、谷、海의 位置形勢에 依하야 決定되는 故로 此等 山河의 形勢如何에 依하야 幸히 通路 ……

地位와 國民經濟의 關係

地位如何는 政治文化 …… 를 決定하며 經濟交通의 …… 又는 決定하야 國民 ……

「말크쓰」의 唯物史觀(八)

李順鐸(寄)

第一編 共産黨宣言(續)

…… 法이오 또한 理性法이라고 思惟하나 그러나 如斯한 利己的 觀念은 過去의 總支配階級이 有産者와 한가지로 가진것이니 有産者가 古代式 所有權에 對하야 또한 封建的 所有權에 對하야 가진 觀念을 今에 至하야 한가지로 有産者的 所有權에 對하야도 律함은 許諾할수업도다」

上記한바도 한가지로 「精神的 生産物」에 對한 物質的 又는 階級的 觀點의 一例라 稱할수잇슴이라

尙且 宗敎的 哲學的 精神的 見地로부터 共産主義에 加한 非難에 對하야 宣言書가 答한 如次 一句는 사람마다 注目할 價値가 잇는바이로다

「宗敎的 哲學的及 一般精神的 見地로부터 加한 共産主義에 對한 彈劾案은 그다지 詳細히 吟味할 價値가 업나니 蓋 人間의 觀念 意見及 槪念이 一言으로 蔽之하면 人間의 意識이 人間의 生活關係와 共히 人間의 社會的 聯絡과 共히 人間의 社會的 存在와 共히 變化한 者임은 深奧한 洞見을 不待하고도 吾人의 觀念할수 잇는바이오 思想史의 證明한바는 精神的 生命이 物質的 生産에 作하야 變化한다 하는것이니 一時代의 支配的 思想은 恒常 오즉 支配的 階級의 思想이니라」

然而 一宗한 社會에 革命的 思想 ─ 即 社會組織을 變革하려하는 思想 ─ 이 起하면 그를 物質的 方面으로 본즉 이미 그 社會內에 組織改造의 따라서 新社會成立의 物質的 條件이 醸成된 證據라고 마르크쓰는 思惟하엿슴으로 如次 宣言書에 논곳을 承하야 逆하엿도다

「엇던 사람은 全社會를 革命하려하는 思想을 鼓吹하나 그러나 이에 依하야 舊社會의 內部에 一新社會의 要素가 이미 形成된 것과 舊生産關係의 崩壞와 共히 舊思想의 破壞가 一程도로 進步한다는 것等의 事實을 表示함에 不過하나니다」

「舊世界가 將次 沒落하려하는것임에 舊宗敎는 基督敎에 依하야 征服되얏스며 또한 基督敎的 思想이 第十八世紀의 啓蒙思想에 因하야 屈服되던 時에는 封建社會는 當時의 革命的 有産階級과 必占의 決戰을 爲하얏나니 良心의 自由及 信敎의 自由라는 思想은 다못 現代 自由競爭의 支配下에서 薰育된 智識의 範圍內에서 그를 表示함에 不過하나니라」

吾人은 此等 文句中에서 『經濟學批評』의 序文中에 包含된 唯物史觀의 公式中의 「人間의 意識이 그(社會組織構造) 存在를 決定할 것이 아니오 寧히 此와 反하야 彼等(人間)의 社會的 存在가 그 意識을 決定한다」는것이던지 「如斯한 變革時代를 그 時代의 意識으로 判斷하려함은……何뭇엇는바이업슴과 아니라 寧히 이 意識이 物質的 生活의 矛盾으로부터 即 社會的 生産力과 生産關係 사이에 存在한 衝突로부터 說明할수 잇는것이라」는것이든지 처음으로 說明할수 잇는 字句의 註釋을 玆에 發見할수 잇도다

社告

郵便規則의 改正으로 因하야 郵送讀者에게 發送하는 新聞封皮에는 到着郵便局所名을 表記함을 要하는바 今後 地方에서 本報購讀을 請求하시는 人士는 先金送付 同時 通知書에는 住所氏名을 詳記하는 以外에 新聞의 配達을 受할 郵便局所名을 明記하심을 要함

東亞日報社

當局者의無信

法廷에顯露된一例

작일오전경성복심법원구내 부녀의곡성은무엇을말하나

구슬픈 봄비밧이 소々히 나리고 그는작일 오전열한시경에 종로재판소구내에서 년긔 사십여세나되여보히는 늙은부인이 십이삼세의 어린소녀의손목을잡고 비를마즈며 죄수를싯고 서대문감옥으로향하는 자동차를 따라가며가슴이 터질듯이 울고그압헤는년긔 이십내외의 녀학생이 역시그와가치울며 재판소근처에는돌연히곡성이랑자하고 이것을본다른사람들까지 비를마즈며 따라나갓더라 사정업시 달녀가는 자동차는 순식간에다라나고 그부인들은 멀니다라나는 자동차를바라보면서 통곡하다가 자동차의그림자가 사라지매 밋친듯취한듯 엇지할줄을모르고 운다 사정업시 쏘다지는 비밧은실새업시 나리어 그들의 눈물에커진옷을더욱々々 적시는데 그들은여전히 울기를마지아니하고 재판소구내에 서잇는 앙화나무도 [illegible]을 먹음은듯할수업는 일장비극을일우엇더라

歸順者를死刑宣告

군대에서는생명을보증하고 사법관텽에서는사형을선고

무슨연고로 그녀자들은 그와가치 가슴이무여지는듯이 우는가 그들은원래함경북도회령(會寧)사람으로 수년전에 간도에드러갓다가 독립운동에참가하야 함흥디방법원청진지텽(咸興地方法院淸津支廳)에서

사형선고 를밧고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엿다가 작일오전에공소기각(控訴棄却)을당한 장성순(張成順)의커리씨와두딸이다 부모가백세향수를 하다가 병으로 죽어도원통하거던 죄로인하야 사형을받게되는것이며 사형을받게되는것도 원통하거던 더구나무실한 죄명으로 죽는것이며 무실한죄명으로 죽는것도원통하거던 이상한 경우에 괴상한말에속아서 죽게되는것이라 그의가족과 자손들이얼마나 지원극통하리오

장성순은 원래 함경북도회령군(會寧郡)사람으로뎌해전에간도화룡현지신사(間島和龍縣智新社)에가서살다가 재작년이래 간도에서 독립운동을부덕하고 철렵된국민회(國民會)에가입하야 독립운동을하다가일이뜻과갓지못하고 일본관헌의 수식이심하매 몸을피하야 일본관헌의 힘이 밋치지못하는 중국영에가서잇더니 그해십이월에 계우교(濟愚敎)도량묘(梁某)가장성순을 차커보고 일본군대에게귀화하면 죄를용서하야 준다하매 장성순은그말을밋고 도라왓더니 그때만주에출장하얏든

십구사단(十九師團)에 서는 여러가지로말을하고 십구사단사령부(司令部)의명의로귀순장(歸順證)을하야주엇는데장성순은 이것을밋고 집에잇섯더니 몃칠후에 회녕경찰서에서두어명의 경관이와서 데포하야함흥디방법원청진지텽으로압송하야

피고는 국민회경호부당이 되여다수한 독립단을 모집하고 그의부하가 일본밀명의 혐의잇는리덕선(李德善)을총살하얏다는죄목으로 장성순은 동류최정수(崔正洙)와함께사형을밧고그외에는모다 십여년징역 선고를바닷는데 장성순은 원래

경호부당 이되며 독립운동금과 독립단을 모집한일은잇스나사람 죽인데는 상관이업다고주장하얏스나 재판소에서는 네가경호 부당이낫가 그렇게죽이라가른친것 이라하야 최정수만무긔징역 이되고 결국공소가기각되엿는데 장성순의 가족근그때귀순증서를 취급하든 십구사단에가서 울며애원한결과

保證書

張成順

汝 大局上 前非를悔悟하고恭順의誠意를表하야而後斷코妄動을爲치아니할事를良心으로誓約하면志士로相當한待遇를爲하고且其生命을保證하는바이라

陸軍中佐 閼岐態男

龍井村歸順者取扱委員長

이와가튼보증서까지 어덧스나재판소에서는 군대에서 한일이무슨관계가 잇느냐고 더욱々々사형을주장하야 결국그리 된것이라하며 이에대하야 세상사람들은모다 일본군대와당국의 무신에대하야비난공격이 심하다더라

◇농가의고대하든약비 ‖작일오전종로에서‖

奉迎人의注意

시간을직히라고

왕세자뎐하 (王世子殿下) 일행이 명일오후여섯시십오분에 남대문역(南大門驛)에 도착하실터인데 당일정거장구내에는 봉영하는사람이 혼잡할모양임으로 경찰당국에서는 비상한경계를하려니와당일에봉영하기위하야 구내에드러오는사람은주로코트나와 이에상당한 의복을 입을지며 느커도 그날오후오시오십오분까지 입장케하고 또입장하는사람은 자긔의신분을 명백히긔록한명함을 내여보히고 또배정한커소에 셧다가 뎐하가나아가신후에 각々 헤터지가게한다더라

饑春의雨, 渴仰의水

이십삼일이래의물가든비 평안남도이남으로전부와

오래동안 일긔가화창하야 쏫구경을하려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조왓스나 비가오래동안 오지아니하야 디방농민들은 이때가차々 농사를시작할때이요 일즉이부친 모자리에는 물이말나서쩌지아니한 소동을 이르키든중재작이십 삼일오후령시 반부터경성에는비방울이시작되더니 오후부터는 하늘이자욱하며 부실부실오는 비가밤새도록 계속하고 작일오후두시반까지 계속하야경성은 한평에 두말엿되가량의비가와서 물은흡족치 못하나야채라든지 보리에는 술것은비라하겟다 이번비는 평안남도(平安南道)디방부터시작하야차々남편으로 경성과 경성남편으로는부산(釜山)서지다왓고강원도(江原道)함경남도(咸鏡南道)등디방에도 적지아니한 비가왓스며이번비는 대개이만 긋치고 오날은 개일터이라고측후소(測候所)에서는 말하더라

小作人을亂打

고소를당한농감

황해도봉산군서종면흥수리 (黃海道鳳山郡西鍾面興壽里)사는농감(農監)홍준식(洪俊植)은본래부터소작인에대하야불평을주든바 금년봄에는 자긔경영에잇는바장견(朴長謙)의집을사서자긔의 아들을분가식힐량으로 팔십원내라는 집갑을 륙십오원에사라다가 종시 팔지아니함으로자긔생각에는 다른사람이 사지아니할줄로알고 그만 두엇섯는데 자긔의감독하는소작인 곽경모(郭京模)(四)가팔십원에삿다는소식을듯고 홍준식은 불이날데 말다툼을하다가 종래분참지못하고자긔의두아우와협력하야함부로싸리엇슴으로곽경로는맛춤내 인사를차리지 못하엿는대지금까지 그동내에서 내며못겟다고함으로 어리석은 곽경로는겁을내여 엇절줄을 몰나주커하든중 본월이십이일에 사리원경찰서에 고소를 하엿다더라(사리원)

兒孩를不法監禁

악행한진주면당커 경찰처치에대불평

진주군진주면 비봉동 륙십사번디(晋州面飛鳳洞六四)에사는강성모의넷재아들 강재권(姜聖模四男姜在權)(八)이라는아해는그이곳에 사는오모라는 열살되아해와함씌 십팔일오전에 남문안에과자상을 경영하고잇는 방금

진주면장 상원삼사랑(晋州面長上原三四郎)씨의커 상원모라는녀자의덥방에서 엇던사람이과자를 사다가 써러터린과자한개를 집어가진것을 상원모라는녀자는 그것을 도적하얏다하고그아해를잡아서삼노(麻繩)로두팔과몸을뭇거 그집후원 복사나무에 다라매엿는데 그아해는슬피부르지々며 애걸 하얏스나 그녀자는 듯지아니하얏다 이에함씌갓든 아해들은 크게놀내여그아해의집에 가서 그형의게말하얏는데그

집안사람 들은 달녀가서그녀자를보고 말하얏스나 듯지아니함으로 엇지할수업서 진주경찰서에가서 말하야순사를 다려고가서 그광경을보이고 그순사는칼로써 삼노를 끈어바리고그아해를 구원하야다 그동안은세시간을 지내엿는데 그아해는죽을지경에 이르럿스나 인하야무사하얏스며 매이여잇는 동안에옷에다 똥을쌋다한다 그녀자는경찰서에서설유를밧고 곳나왓는데

소위면장 의안해로 그러한만행을할도 일반이 분개하는바이며 그녀자로말하면 상당한불법감금(不法監禁)의죄를범한것인데 엇지하야 경찰에서설유만으로 그만두엇는지 혹은면당의처이라하야 그런만행을 하고도무사한것이나 아닌가하고 일반시민은분개한다더라(진주)

◇在外同胞慰問會◇

遠來의觀衆도多數

금천디방의위문강연상황

이십이일 오후세시경에 자동차를달녀서 금천(金泉)부근에 도착함에 금천의다수한 유지들은자동차를 타고나와 영접를하야오후다섯시경에 이곳에 도착한즉 군음내밧까지 수백명의유지들이 행렬을지어서 환영을하얏고 이곳 흥업회사(興業會社)에안내되야 커녁을먹으며 잡시휴식한후 여덟시부터 남산좌 (南山座)에서 이곳 청년회장(靑年會長)의사회로 간단한개회사가잇슨후에 환등을 영사하얏는대관중은 륙백명에달하야 대성황을이루어 박수갈채속에서 열시에 환등을맛치고 회원들을모집함애 다수한입회원이잇섯스며 열시부터 세계대세와 국제덕조선(世界大勢와國際的朝鮮)이라는문데로 열두시까지강연하고 음악을연주하는중에 폐회하얏는대 이곳유지들은 열심으로찬성하는뜻을표하야 고산강습소(高山講習所)에서는 성주(星州)에서학생을다리고 강연회에 출석하는등 그열심은 이루긔록할수업스며 이십삼일오후 두시에는흥업회사 에서 열니인 유지들의환영회에 출석하야 주객이흥을다하며 담화를교환한후에 네시에환영회는 맛치엇다 이곳의시장의성황은 일반이다아는바 이나 그중에 과하주(過夏酒)와 가튼것은 가장유명하다더라(금천)

大阪府內의朝鮮人調査

인수는일만이상

대판부(大阪府)에 거주하는 조선사람은 얼마권에 당국자의조사에의하면 칠천오백명이오 그중에 사상상으로 취례를할만한요시찰인물은 대략 삼십여명에불과하나 요사이 대판에오는조선사람이 점々증가하야 그수효는 일만인이상에달하엿스며 그중에위험사상을 품은사람도 적지아니한모양임으로 경찰부특별고등과에서는 관내각경찰서에 명령하야 조사를행하게하엿는데 그조사는 그들의본적과사상과 교육정도와생활상태를 자세히 긔록한표를 만든다더라 (대판)

今日

在外同胞慰問幻燈講演會

處所 禮泉 會費 一圓、五十錢、三十錢

(明日 安東) (日程一部變更)

海蔘威同胞演藝團

금일텬도교당에서 첫날의묘기를자랑

해삼위(海蔘威)에서온텬도교청년회연예단(演藝團)은금이십오일하오칠시반부터 경운동 텬도교당에서이틀동안개연할터이라는데 이번연예단은천부 이십일인으로서 그대부분는 음악과연예의전문가라하며 그중에 김동환(金東煥)씨는 연해주정부 현악대감독 (沿海州政府絃樂隊監督)으로잇는터이오리봉극(李鳳極)씨는소로서아 무도전문학교(小露西亞舞蹈專門學校)출신이오기타대개는각학교교사와음악전문의학생이 만흐며 녀자로는해삼위 자선부인회당서진선(慈善婦人會長徐眞禪)녀자와 고등녀학교학생 고숙경(高淑卿)양과수여전문학교학생 고군숙(高君淑)양의삼인이 모다음악과무도에한숙하다하며 금일은음악과무도를하고명일은연극을할터인대매우흥미가잇스리라하며입장료는백표이원청표일원오십전홍표일원 학생반익이오 순서는다음과갓다는바 경성에서 이틀동안을맛치고는 서선방면을 위시하야 각디방으로 순회한다더라

曲目의順序

第一日(二十五日下午七時半)

一、舞蹈▲海軍舞蹈▲小露西亞舞蹈▲飛行機舞蹈▲에쓰바노舞蹈▲其他數十種

二、音樂▲農村의살님(絃樂)▲마수루카(絃樂)▲떠오는달▲사랑의꿈▲말모리(女子獨唱)▲쌩쌔라징(男獨唱)▲오로만쓰(管樂)▲七面鳥(絃樂合奏)▲波蘭의美人(舞蹈絃樂)▲其他十餘種

第二日(二十六日下午七時半)

演劇 題 人生은눈물 男女總出演

浮浪者檢擧

평양에서이십륙명

평양부내(平壤府內)를위시하야각방면으로 부랑한행동을 하고일업시 방황하는자와 기싱집기타화류장에 출몰하며 풍긔상아름답지못한 행위를하는자가 일긔의온화하야짐을따라더욱느러가기를 시작함으로 평양경찰서(平壤警察署)에서는지난이십일々부터 부랑자의검거를 시작하야방금활동하는중인대이십이일까지 검거한수가 이십륙명이나된다하며 각々이십구일식 류치장에 류치하기로 즉결하엿다더라 (평양)

申請은卅日限

평양축구대회

평양긔독청년회 (平壤基督青年會)주최와본사평양지국(本社平壤支局)후원으로 오는오월삼일사일량일을 긔회하야 평양숭실중학교 운동장(崇實中學校運動場)에서 데이회 전선축구대회(第二回全鮮蹴球大會)를개최한다함은 임의보도한바어니와 이번축구대회는 평양에서 두번재개최되는 회합이며 중등학교와청년구락부 두종으로난호아 참가단데가다수히될터는물론일자를느릴터이요 예선(豫選)은 륙십분(六十分)으로 결승 (決戰)은 구십분(九十分)으로하야 뎡한시각안에 승부가 업슬때에는성적으로 승부를 뎡하게될터이라 뜻이잇고용긔가잇는 각단데에서는 선수들의성명과 년령을긔입하야 본월말일까지 평양긔독교 청년회사무실로 통긔함이곳켓스며 발긔자편에서는 각참가단데의청수에 응하야 숙박할려관까지 주선하기로하얏더라(평양)

萬一의事를念慮하야

시내각호를일일히조사 요시찰인은전부주의중

래이십륙일에는 왕세자뎐하께서 입경하시는 때임으로 혹엇던단데의불온한 행동이나 업슬가하야시내각경찰서 에서는 요사이특별수색반(特別搜索班)을조직하여가지고 관내각주의 인물과또는각려관을 엄중히 수색중이며오는이십륙일 아츰에는 요시찰(要視察)인물과또는근래중국과기타해외에서 도라온 주의인물을모다검속하야 사건의 돌발을예방코저하야 시내각호를 일々히도라다니며 실디조사를 한다더라

平壤市民運動

래월일이량일에

평양(平壤)에서는오는오월일일이일량일을 긔회하야 동부내경상리(慶上里)숭덕학교 (崇德學校)운동장에서시민운동회(市民大運動)를개최하기로 얼마전부터 모든것을준비하는중인바 이번시민운동회는 년래에 평양디방에서 처음으로열니는 회합이며 일반시민의데육의 장려와정신상쾌락을 어들만한긔회가 싱기엇슴으로 시민일반과 모든청년운동가들은 손을곱아 가면서 긔일의속히당하기를 기다리고 매일밤예를지여 평양시가로 쒸여다니며 아모조록남의게 지々안코이기여보기를 준비하는 중이라 각산업계 모든단데와 일반유지자측에서는 운동회의 취지를찬성하는마음으로 회의경비의 보조로 다수한금의을 앗기지안코

歸順之證

右歸順者タルコトヲ證明ス

大正九年十二月

第十九師團司令部

◇사형바든장성순과 ─ 군대에서하여준귀순증

海蔘威에女學校

아소교에서신설

해삼위 (海蔘威)에는 수만명의조선사람이잇스되 그들의 자데를 교육할만한긔관이 별로히업스며 더구나 녀자교육에이르러는 그긔관이아조업다하여도 과언이아니다 이번에 그곳신한촌(新韓村) 예수교회에서는 삼일녀학교 (三一女學校)를 설립하고 목사오순형(吳舜炯)씨를 조선에보내여 상당한 교육을바든녀선생을 청하게되여는대 오순형씨는 지나간삼월초순에 경성에와서 리화학당(梨花學堂) 중등과를 졸업하고 황해도사리원(黃海道沙里院)에잇는덕성학교(德盛學校)에서 다년간 일을보든 윤보민(尹寶民)양과 평양숭의녀중학교(崇義女中學校)를졸업하고 진주광림학교(晋州光林學校)에서 오래동안 일을보든계수정 (桂水晶) 양을 고빙하여가지고 지난 이십이일아츰에 남대문을떠나 원산(元山)으로 향하엿다더라

電車에落傷하야

머리를몹시닷처

재작이십삼일오후일곱시삼십분경에 룡산행 데일백륙십삼호뎐차가 시내남대문통오뎡목(南大門通五丁目)부근을지날때에 시내공평동십삼번디(公平洞)에사는연익선(延益善)(三)은운전대에서 밧갓을바라보다가 그만던주에 머리를부다치여 떠에넘어지는동시에 얼골과머리가 크게부상하엿는데방금세부란스병원에 입원치료중이며 원래머리를너머다치어뇌진탕(腦振盪)이되기때문에생명이위험하다더라

◇신랑신부 윤치오(尹致旿)씨의장녀 시천(時蒨)양과민유식(閔裕植)씨의삼데원식(瑗植)군은명이십륙일정오십이시에명치뎡텬주교당에서결혼식을 거행한다더라

自働車에火災

휘발유에담배불로 자동차한채를래어

지나간이십이일아츰일곱시에대뎐춘일뎡일뎡목 백십이번디(大田春日町一丁目) 금산행자동차부(錦山行自働車部)에두엇든금산군금산면 상리(錦山郡錦山面上里)판본종십랑 (坂本宗十郎)의소유인 전북데십호(全北第十號)자동차에서 별안간불이나서 대뎐소방대(大田消防隊)에서권부출동하야 진화에 노력하얏는데그자동차는 전소되고 그남아는무사하얏는바원인은그자동차발동긔에휘발유(揮發油)를넣을때에넘처서떠에흘녀든것을모르고엽헤잇는 소야인력거조(小野人力車組)인력거군이 담배불을던지어 불이붓게되얏다하며 손해는 자동차한대를 태워뿐이라더라 (대뎐)

離婚코자放火한

녀자는공판에

강원도텰원군북면 홍원리 칠백구십팔번디 리준의커안씨(江原道鐵原郡北面洪元里李俊誼妻安氏)(三)는방화죄로 경성디방법원예심계에서 예심을맛치고 공판에붓치엇는대 범죄 사실을듯건대 안씨는칠팔년전에 리준의와혼인하야 이때까지 사라오는중안씨는 항상남편리준의를 미워하야 여러번싸호고 리혼을하야달나고 하얏스나 듯지아니함으로 금년이월상순경에는 친청부친안석주(安錫周)의집에와서도모지 가지아니하려 하얏스나리준의가 여러번다시오라고 롱지하얏슴으로 할수업시 다시가서살다가 안씨생각에 집에불을노호면 리혼을식혀줄々로 알고삼월일々오후여덜시경에 집에불을노은것이라는데 이것은 전혀정업는 내외사이에 이러난비극이라하겟더라

鼠穴로發火

재작이십삼일오후여섯시 삼십분경에 시내팔판동일번디(八判洞一)에사는김성배(金聖培)의집에서돌연히불이나서 련청과면목을 태우고동사십오분에 진화되엿는데 손해는십오원이오 원인은 방안쥐구멍에서 불이난것 이라더라

人力車와電車

재작이십삼일오후 열시경에 광희문행데륙십삼호뎐차가 시내고서뎡 십사번디(古市町)압흘지날때에시내렁동 일백오십 삼번디(冷洞)에사는인력거차부 한근호(韓謹鎬)(三)는룡산에서인력거를 끌고뎐거커소에 이르러 구비질어매우불편함으로 뎐차궤도 안으로지나가든바 돌연히 뎐차와충돌이되야 인력거한채가 모다파손되엿는데 손해는 백원가량이오기타인명의피상은업다더라

荷車를粉碎

재작이십삼일오후세시 이십분경에 시내필운동일팔번디 (弼雲洞一八○)에사는 리성렬(李成烈)(三)은 남대문뎡거장에서 자동차를운뎐하여가지고 종로방면으로 향하든바 남대문통오뎡목 팔번디(南大門通五丁目八)압해이르러 자동차를갑잣운뎐하야 길엽헤노아둔 짐차무개를 파손식혓는데손해는오십여원이라더라

女子夏期講習會

방금유지가제휘중

금년하긔의 휴가를리용하야 경성안의 각녀학교녀교원들은 하긔강습회를 조직하야 [illegible]경학원(經學院)을빌녀사회학(社會學) 심리학(心理學) 조선사(朝鮮歷史)등의과목을강습할터이라는데 이에대하야 발긔자김필례(金弼禮)씨외여러녀자가이십이일에리화학당(梨花學堂)에모히어의론하얏다더라

宣川에强盜

선천군산면향산동류중한(宣川郡山面香山洞劉仲漢)의집에지나간 십팔일오전삼시에 강도한명이 침입하야주인류중한 의게권총을 향하고위협하야 현금오십칠원을 강탈도주 하얏다는데 강도의가진권총은 경찰권총이아니요 아해들작난감 권총인듯하며 방금경찰당국에서는 범인을 수색중이라더라 (선천)

◇모임◇

▲종로청년회강연회 금이십오일하오팔시에신흥우(申興雨)씨가(北京旅行의所感)이라는연데로강연한다고 ▲불교대회강연회 금일하오팔시에 당곡권덕 그회관에서다음과가치강연한다고

現時代와安身立命의樂地 李晦光

死로부터生에(未定) 深內式巖

朴一東

天氣豫報

曇一時晴

溫度 廿三日最高 廿一・〇 攝氏 廿四日正午 十一・三

日出 上午五時五二分 日入 下午七時一三分

自廿四日午後六時 至廿五日午後六時

◎온도비교◎(攝氏)

今年昨日(正午) 十一・三

昨年昨日(正午) 二十・〇

昨年最高 三五・六

◇휴지통

▲왕세자뎐하께서는 명일오후륙시 십오분에남대문역에 도착하실터인데 경찰서에서는 만일을넘려한다고 가々호々에순사가 도라다니며 수상자를조사하는데 ▲'쓸데업는일을공연히 떠드러서 청말귀치안하! 비싸지마즈변서 이게무슨일이야,'함은어제아츰에 비를맛고 도라다니든 엇던한순사의불평 ▲순사씀이야 월급을어더먹고하는일이 낫가 불평이 잇든지업든지 상관업겟지만은 순사라하면 공연히실혀하는 인민에게뜻밧게 순사의취조를 밧게함은더욱큰불평잇든▲'왕게자가오신다가에 구경을하랴 왓더니순사등쌀에견델수가잇다고어서도라가야하겟구면…'하며 머느시골사람은 구경도 고만두고도라가겟다고▲못커렁행차에인민의마음을 공연히 이렇케소동케함은 무슨일일가 이것도경무국당의 장래공적의 한가지가되겟지